

2026년 8월 21일

Hana FX Daily Letter

환율 1,300원대 진입, 원화 강세 기조 이어질까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대외 리스크 및 달러 반등에도 수급 요인에 상단 제한**
daily range 예상: 1,388~1,399원

■ 미국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 예고로 국제유가가 급등. 또한,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로 인해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임. 이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달러 반등 영향으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상단에서는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9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

■ **전일 동향** : 20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6.9원 오른 1,396.0원 마감. 장 초반,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발표에 따른 달러 약세를 반영하며 1,380원대 중반까지 하락. 이후 달러 반등과 결제수요 등 저점 매수세에 상승 전환, 1,392.6원에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미 국채 금리 반등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달러 움직임 따라가며 추가 상승, 1,390원대 중반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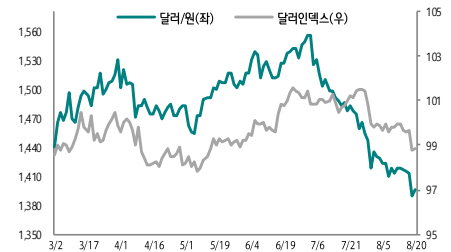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이란 갈등 격화 우려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데다, 미 국채 금리도 반등하자 달러는 전일의 낙폭을 일부 되돌리며 강보합세를 기록
- (유로-달러) 독일 7월 PPI가 시장 예상치 및 이전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 이는 ECB 추가 긴축 경계감으로 이어져 유로화 강세를 견인
- (달러-엔)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오른 반면, BOJ의 긴축 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자 엔화의 약세 압력이 확대되며 159엔대로 상승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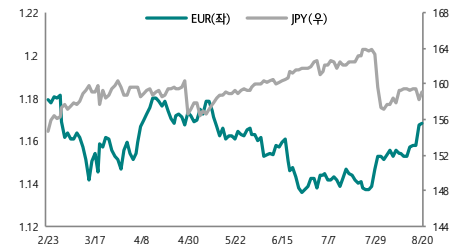
■ 지난달 초 1,500원 중반대까지 치솟았던 원화 환율이 약 1개월 반 만에 1,300원 후반대로 급락했음. 이번 환율 하락은 한국 경제 펀더멘털 강화와 한은의 선제적 긴축 기조 선회, 수급 개선 등 내부적 동인과 함께, 중동 전쟁에 대한 민감도 약화, 미국 재정 적자 이슈에 따른 달러 신뢰도 저하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판단됨. 연말까지 원화는 완만한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우선, 원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경상 흑자 기조와 견조한 성장세, 그리고 한은의 추가 긴축 가능성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 등이 강세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다만, 수급 측면에서 대미 투자 불확실성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투자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현재 미-이란 전쟁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갈등 격화 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연준의 매�파적 성향 강화 등이 상방 압력을 유발할 수 있음. 중단기적으로 원화는 우호적인 수급 여건에 힘입어 1,360원 수준을 하단으로 완만한 강세를 나타낼 전망. 다만,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는 시점에는 상방 압력을 받으며 1,400원대를 다소 넘나드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87.0	1,396.6	1,384.1	1,394.2

주요 통화 추이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678	159.06	6.7252
전일대비	+0.0001	+0.90	-0.0053
재정환율	1,631.68	877.42	207.75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5:00	영국 7월 소매판매(MoM)	-0.5%	1.0%
17:00	유로존 8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51.8	51.9
22:45	미국 8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53.9	53.9
	미국 8월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54.0	54.6

달러/원 환율 변동성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